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29일)은 선교주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선교의 열풍이 계속되도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모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슬퍼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마 9:36, 눅 19:41)이었고, 바울의 마음(롬 9:2,3)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두 눈에 눈물이 마르며 외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되고 있는 선교의 열풍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선교주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골 1:8).

*다음 주일(5월)에 제3차 CMC 훈련이 있습니다.

내일(3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위임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 시작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위임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해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새벽기도회에 반드시 나와서 앞으로 있을 제1차 청지기 훈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일집회)

그리스도의 성품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께의 아들로 표현한다(요 1:1-4). 그리스도의 신적 초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주신 것이다(골 2:9-11).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게 된다(요 1:1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며 만지고 느낄 수 있다(요 1:12). 이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기적이며 은총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히 1:8, 시 45:6).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요 17:24). 백성들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듣게 된다(눅 3:21,22). 물 위를 걸었고, 변화산상의 체험과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였다(마 16:16,17).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한다(요 10:36). 부활의 주님 앞에서 도마도 간증한다(요 20:28). 한 때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한 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고전 12:3).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배를 요구하셨다(골 2:11, 요 9:15,12,3, 요 10:30).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음으로만 믿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의 사역과 또 성품을 이해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①영원하시다(요 17:5, 히 1:11,12). ②항상 어디에나 계시다(골 2:8,20). ③전지전능하시다(히 1:3). ④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골 1:16,17). ⑤하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하신다(눅 5:24). ⑥모든 사람은 삼만 날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것이다(요 5:26,27).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모든 성령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되고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인성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그 분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탄생하셨다(마 1:24,25, 눅 2:5-7, 요 1:14, 딤후전 3:16).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계셨으며(요 4:2), 인간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눅 2:52).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딤후전 2:5), 인자(눅 19:10), 다윗의 자손(마 10:47)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셨으며, 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한계도 지니고 계셨다. 바울은 이를 한마디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라”(골 2:9)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빌립보서 2:9-11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사실과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연합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의 진정한 연합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심오한 결합을 이해하기에 합당한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실로 인한 많은 의문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있는 반면에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신성과 인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엄중하므로 최고의 철학자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지니신 인성은 우리의 똑같은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참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의 큰잔치입니다.

주 제 :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 (갈 2:20)

일 시 : 2월 17일 저녁 7시 금요일집회

장 소 : 충현교회 본당

보혈의 은혜로 가득한 금요일집회!

금주(2월 3일), 금요일집회부터 교구별 좌석 확대 변경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풍성한 금요일집회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본당 1층 뿐만 아니라 2층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성도들이 은총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본당 2층을 포함한 교구별 좌석을 새롭게 청하했습니다. 금주(2월 3일), 금요일 집회서부터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교구별 좌석은 본지 7면을 참조하세요.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ves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examine yourselves! Or do you not recogn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 unless indeed you fail the test?” (2 Corinthians 13:5)

When was the last time you tested yourself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This analysis does not concern other people or things; it just looks at your faith. Examine yourself right now to ensure that Jesus Christ is in you.

Who are your friends? Psalm 1:1 tells us,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With what kind of people do you associate? Your life of faith reveals your choices. Proverbs 13:20 says, “He who walks with wise men will be wise, but the companion of fools will suffer harm.” There is an old oriental truism that says when we look at your friends we know who you are. By nature, we are social creatures. So, with whom do you like to get together? Amos 3:3 says, “Do two men walk together unless they have made an appointment?” As a Christian, how can you walk together with the faithless? Righteousness and unrighteousness, Christ and idols, godly trust and worldliness, God and money, and the cross and fame cannot go together. “Therefore, come out from their midst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And do not touch what is unclean; and I will welcome you. And I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shall be sons and daughters to Me, says the Lord Almighty”(2 Cor. 6:17&18). Do you bind yourself with unbelievers? Please, examine your relationships. There is no fellowship between light and darkness.

What kind of habits do you have? Is your lifestyle heavenly or worldly? James 4:4 says, “You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As a Christian, we are new creatures in Jesus Christ. Our behaviors and routines have to go along with the practice of faith. 1 Jn. 2:15-17 tells us,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Please, examine your habits. They need to correspond with the

faith.

Is your thinking in-line with God's word? What kind of things do you spend time thinking? Psalm 10:4 says, “The wicked, in the haughtiness of his countenance, does not seek Him. All his thoughts are, ‘There is no God.’” Do you really love God or other people and things? Luke 10:27 say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Matthew 10:37 warns us,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Do you have many negative thoughts? Philippians 4:8 says, “Finally, brethre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of good reput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dwell on these things.” It is so easy for worldly matters to entangle you, so the Bible tells us.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Col. 3:2). Why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For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Rom. 8:6). Amen.

What is your motive? 1 Corinthians 10:31 says, “Whether, then,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Is your motive to glorify God in everything? When you sit down for meals or have a cup of coffee with someone, is your purpose to glorify God? Is the reason you go to work or school to glorify God? When you wake-up in the morning, is your aim to glorify God? Colossians 3:17 says,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You cannot glorify God through your own effort and power. You have to deny yourself completely and follow Jesus Christ. My dear friend, is Jesus Christ in you? Please examine yourself and do not delay. Look at your friends, habits, thoughts, and your motive for living. If you put this off, you may never have the chance again. Do not make the mistake of eternal regret. Come to Jesus, so that He may dwell within you. Examine yourself to ensure that you are practicing faith. ■

다음 주일 설교

너희 자신을 살피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고린도후서 13:5)



김성관 목사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해 분석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지금 바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친 구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시편 1:1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20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동양 속담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야모스 3:3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우상, 거룩한 믿음과 세속, 하나님과 재물, 십자가와 명예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고후 6:17, 18). 여러분은 불신자와 연합하십니까? 자신의 인간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습 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입니까? 야고보서 4:4은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15-17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신의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은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생 각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편 10:4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고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27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0:37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빌립보서 4:8은 말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세상적인 일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속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 3:2). 왜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롬 8:6)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삶의 동인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인(動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31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삶의 동인입니까?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커피를 마실 때도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까?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17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신의 친구, 습관, 생각, 삶의 동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십시오. ■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충만한 기획위원회



이종식 (장로, 기획위원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요 모든 방향은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이렇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당연히 모든 일을 기획하는데 있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모든 일을 기획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봉사 등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새롭게 바뀌어진 두 기둥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역시 이 말씀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기획위원회도 모든 기획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전 성도가 힘써야 할 5대 목표

기획위원회는 말씀에 순종하며 본 교회의 복음 사역과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대 목표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힘써야 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예배는 모든 교회의 사역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탐 쏠려야 합니다. 또한, 양성된 천국 일꾼들이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녀라면 전도와 선교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중년복지관이 더욱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풍성한 내일을 위해

저희들은 십자가로 풍성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이 시대를 위해서 실버타운 사업을 기획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관계를 맺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유수의 노인복지 시설 탐방을 마친 상태이며, 이 시설을 위한 관제발령에 대한 검토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양로원 설립 추진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이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흔한 이 시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여 어둠의 문화와 즐거움을 좇아가는 젊은이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된 내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기획 중에 있으며, 모든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로 무장된 천국일꾼 양성과 복음에 기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큰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한가지로 충현의 전 성도들도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운 일들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삶과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기획위원회 일꾼들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수련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한 건, 이것을 때는 '성경학교, 수련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대에 부풀어 있던 나였는데 기대는 커녕 가기 싫은 마음이 앞서기 시작한 건,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번 수련회에 가기 싫었던 것은 사실이다. 선교 때문에 잔뜩 밀린 학원과 하원숙제, 또 다시 시작될 엄마의 잔소리 등등, 수련회를 못 간다고 둘러대 이유는 충분하진 않았다.

'선교만 가면 되지 수련회는 왜 가야 되는 거야? 수련회 재미 없잖아.' 같은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끌개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 교만으로 가득찬 나를 꼭 붙들고 계셨다. 결국 수련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해어 나올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선교를 사안으로 나에게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벌써부터 여름 수련회가 기다려진다.

김재경(중등3부)

예수님은 최고로 큼니다!

겨울 성경학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친구들과 함께 미니 올림픽도 하고 성경퀴즈대회 등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도 더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초등부에 더욱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큼니다. 최고로 힘이 셉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정원준(초등부)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요즘 선교위원회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전화 연락 혹은 서류정리로 바쁜 자원봉사자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돕기 위해 맡없이 헌신하시는 많은 지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선교위원회에는 5개의 분과가 각기 일을 분담하여 일사분란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분과에서는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선교팀의 일정과 서류를 일괄 관리하여 차질 없이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분과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얻은 기쁨과 은혜는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일하다가 어려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 해결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들의 작은 헌신과 자기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부인이 조화를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그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굳은 일이란 힘든 일이란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며 뛰며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가는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마친 후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기쁨에 제 안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평강, 감사가 있어서 저의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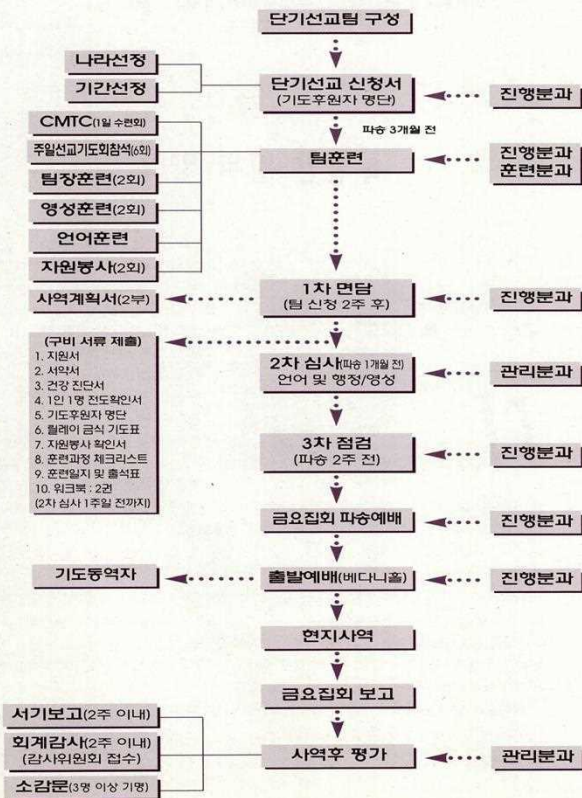


윤숙희(집사, 선교위원회 자원봉사자)

한 눈으로 확인하는 "2006년도 단기선교 진행흐름도"

단기선교에 관한 모든 흐름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기선교의 진행 흐름, 훈련, 준비절차 및 관련분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준비하는 팀과 팀원들은 "단기선교 진행흐름도"를 잘 숙지하여 선교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선교 진행 흐름도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0일(월) ~ 2월 4일(토)	청년1부	이병근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강철형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신상수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이양호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3일(월) ~ 1월 31일(화)	에바다	주순희
1월 25일(수) ~ 1월 31일(화)	청년1부	김을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김종훈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엄복섭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박상대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박종윤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윤해균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이재호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김숙자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박영섭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이보신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최용길

천연덕스럽게 웃는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랑부에서 지낸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면 오직 감사뿐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로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욱 많은 재능과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부 식구들의 찬양 소리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사랑부 식구들과 식당에서 국수를 드셔 보신적 있으세요? 눈 앞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부 식구들은 음정이 맞든 그렇지 않든 그 어떤 입을 가지고도 주를 찬양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이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그 여유있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서는 친구들 그릇 쟁기고 선생님 자리 맡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진 심자가 결코 피롭고 한스러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자가 무거우면 무거우수록 이 시대를 흐르는 물살에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조급의 가난과 조급의 육체적 힘들이 오히려 등에 단단한 짐을 짊어 간한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개울을 건너는 사람처럼, 자신은 심자가 있고 주님이 살아 계셔서 단단하다고 천연덕스럽게 웃는 지체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곳에는 어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과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베풀어 주는 사랑 안에서 소소한 나의 현신이라 말하는 출석이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더욱이 이들과 손잡고 함께 걸으며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현 (교사, 사랑부)

생명력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치가 한없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롬 6:23).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뿐만 아니라 신자라고 말하는 나에게는 죄는 여전히 굉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매일 느낀다. 바로 순간 순간 일어나는 죄악의 욕망들이다. 그 죄악들은 즉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고 만다.

“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처럼 죄는 생명력을 빼앗아간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건강한 세포까지 죽게 만드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므로 진짜로 생명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요일 5:12)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진실로 기쁜 것은 매주 영적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주 강단에서 섰던 심자가 복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던 교만한 이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 반드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러기에 율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한다.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이다.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들이 지구 끝에 있다 해도 된다.

주재성(집사, 침년2부)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창조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옵나이다.

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창조주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중 진흥에 불과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인 양,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불과 마음을 다하는 어리석은 생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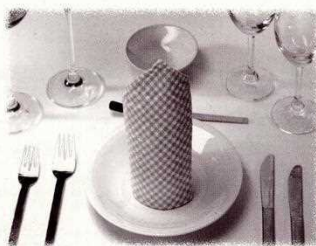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고개 숙인 우리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한희(권사, 17교구)

특별한 영의 양식



2000년에 저희 가정은 이사를 하게 되어 출석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출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김성관 목사의 선교 선포 설교를 듣고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기도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출현의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한 주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집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니 예배 때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할 때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양식이고,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집회는 스페셜 푸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잘 먹으면 즐겁고 건강해질 뿐더러 일할 에너지도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주된 영혼이 되어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서 사랑으로 속삭이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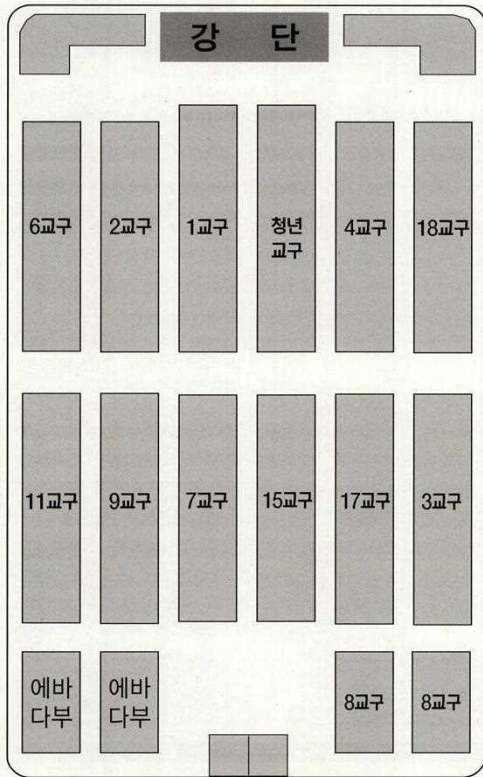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마” 이 사랑의 주님을 어찌 찬양지 않을 수 있을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조인희(집사, 7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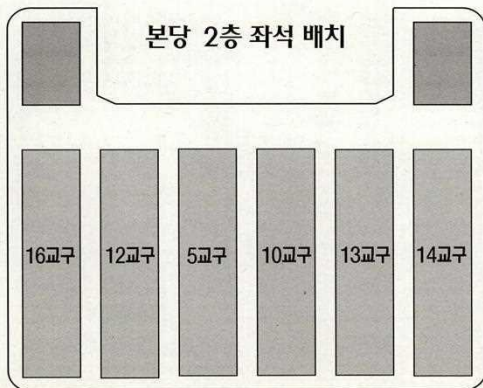
금요집회 교구별 좌석 배치도

금주(2월 3일), 금요집회 부터 실시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교사로만 15년을 섬긴 저에게 찬양대를 섬기는 일은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이 되기위한 오디션 때 부른 찬송가 465장은 평생 찬양이 되었습니다.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찬양대원으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저의 일을 열게 하였습니다. 무려 30번 이상이 찬송을 부르며 연습한 후에, 오디션 때 부르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 바쁜 일 속에서도 찬양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간혹 빠지면 허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여전히 옛 구습이 남아 있는 저에게 금요집회는 아주 특별한 변화의 계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라는 말씀과 이 찬송을 드릴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화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진 눈물을 흘릴 때와 쓰러진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 하시네" 나는 여태 구주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만 계속 죽어가고 있었구나! 나는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아련한 기억만을 가지고 여태 주님과 함께 죽어 있는 줄 착각하고 미련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뜻 고질 질병이 아주 오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저의 영원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호식(집사), 할렐루야 찬양대원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입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6	윤재민	19	청년1부		315	시로이	19	외선부	장인선	354	비트비트	19	외선부	안숙제(13)
277	소지희	16	청년1부	장혜살	316	인두	19	외선부	송정숙	355	김영순	4	장년2부	전혜경(4)
278	장원현	8	청년1부	장원현(1)	317	간	19	외선부	김종희(16)	356	김민옥	4	장년2부	전혜숙(4)
279	이호세	19	중동부	장영희(1)	318	절이	19	외선부	김정미(1)	357	채정진	19	고동부	윤수정(19)
280	박원희	19	중동부	홍영희(15)	319	홍지현	19	외선부	김정미(15)	358	김문수	15	청년2부	이은영(1)
281	신현범	19	대동부	정지현(19)	320	신대희	19	외선부	구혜숙(1)	359	조나호	19	대동부	이혜선(19)
282	김길기	19	고동부	신하영(1)	321	김길기	19	청년1부	정혜영(14)	360	이민호	19	고동부	이혜선(14)
283	황우범	19	대동부	강신애(18)	322	배정진	2	청년1부	노은숙(2)	361	김아리사	19	외선부	박소영(14)
284	김갑남	4	청년1부	김갑남(1)	323	김재현	10	청년2부	노은숙(2)	362	박사미	19	외선부	이근희(14)
285	김은하	19	대동부	박종영(1)	324	정은하	19	대동부	최선영(1)	363	사할	19	외선부	
286	김진영	19	중동부	장영희(17)	325	김재현	19	고동부	이주영(1)	364	다은지	19	외선부	
287	김기영	19	고동부	이은미(13)	326	고수정	19	청년1부	황화자	365	비라라	19	외선부	
288	황재현	19	청년1부	장 지영(1)	327	남태훈	19	고동부	구영숙(3)	366	사민지	19	외선부	
289	권민진	19	고동부	백민애(1)	328	김재현	17	청년2부	유상태(1)	367	이민호	19	외선부	이현희(1)
290	김민희	19	중동부	장영희(1)	329	조시원	15	청년2부	송정미(1)	368	해라	19	외선부	
291	박원희	19	중동부	유재영(1)	330	서영환	19	고동부	하연진(1)	369	정희영	19	대동부	나지혜(19)
292	전수민	19	대동부	이지원(1)	331	홍희희	19	청년1부	지은진(1)	370	이민지	19	대동부	박지선(11)
293	이은혜	19	고동부	안소희(1)	332	김민진	19	대동부	장인선(1)	371	이민지	19	대동부	이상영(18)
294	서영환	12	청년2부	박성태(12)	333	김민진	10	청년1부	김민진(1)	372	김민지	19	대동부	변영희(1)
295	김정민	4	청년2부	미안-하(4)	334	이소현	19	고동부	황문규(1)	373	박정민	19	대동부	박정민(19)
296	전수민	19	청년1부	이재희(1)	335	손민실	8	청년1부	송기영(1)	374	정희영	16	청년1부	박정민(14)
297	이민지	19	중동부	노주영(1)	336	계정주	3	청년1부	조혜숙(1)	375	박정민	19	대동부	김민지(1)
298	정희영	19	대동부	전혜영(1)	337	이민지	19	대동부	이은숙(1)	376	박정민	17	청년1부	김민지(1)
299	이민지	7	청년2부	장지영(17)	338	서영환	19	고동부	김민진(1)	377	권민지	1	청년1부	안숙제(19)
300	이민지	19	대동부	이민지(1)	339	김민진	19	대동부	박정민(1)	378	최 희	19	청년1부	권민지(1)
301	김민지	19	대동부	김민지(13)	340	지정진	13	청년1부	오정민(1)	379	지정진	19	대동부	오정민(1)
302	김수민	19	대동부	이민지(1)	341	김민지	8	청년1부	정신숙(1)	380	조은하	19	대동부	황재현(1)
303	노원	19	외선부	김민지(17)	342	김민지	19	청년1부	최은영(1)	381	조은하	19	대동부	조혜숙(14)
304	서민지	19	고동부	장영희(1)	343	박정민	19	청년1부	정신숙(1)	382	이소영	19	대동부	한술기(1)
305	신민지	19	외선부	장정민(1)	344	정은하	1			383	김민지	19	청년1부	최정민(15)
306	김민지	19	대동부	최정민(1)	345	김민지	19	청년1부	이민지(1)	384	이민지	19	대동부	신혜영(17)
307	정희영	16	청년1부	변영희(1)	346	김민지	19	청년1부	김민지(1)	385	송정민	10	청년2부	왕민지(1)
308	김민지	19	고동부	윤재영(14)	347	문정민	19	고동부	김민지(1)	386	김민지	10	청년2부	왕민지(1)
309	고대훈	19	고동부	최 희(1)	348	구민지	19	대동부	오정민(1)	387	김민지	19	청년1부	조민지(1)
310	이민지	19	고동부	김민지(13)	349	이민지	18	청년2부	이민지(1)	388	정민지	19	대동부	윤재영(1)
311	윤민지	19	대동부	김민지(1)	350	정민지	19	고동부	정민지(1)	389	정민지	19	대동부	정민지(1)
312	사민	19	외선부	윤재영(14)	351	김민지	16	청년2부	구정민(1)	390	김민지	19	대동부	이민지(1)
313	이민지	19	외선부	박정민(1)	352	비트비트	19	외선부	왕민지(13)	391	왕민지	19	대동부	김민지(13)
314	박정민	19	외선부	최정민(1)	353	정민지	19	외선부	최정민(13)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12차의 월례회
일시: 2월 1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관리타운

별세

1. 김삼길 타교성도 (감광전 성도의 부친, 서귀포 권사의 사부, 8교구 용봉2구역) / 20일 별세, 23일 장례
2. 최태현 성도 (최경희 집사의 부친, 권오복 집사의 장인, 9교구 덕소1구역) / 20일 별세, 23일 장례
3. 변태식 성도 (변훈원 성도의 부친, 박순옥 집사의 사부, 9교구 월계1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결혼

1. 이유만 군(이왕봉 장로, 원안자 권사의 아들, 분당 가나나 교회)와 허혜림 양(하동숙 성도, 김정은 집사의 딸, 8교구) / 2월 4일(토) 1200 소파텔 엠바티호텔 2층 그랜드볼룸(장충동)

◆전도회 및 교육위원회 회계 감사

전도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와 1,2,3교육위원회 소속 교육 부서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시산표 1부(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예금통장
대상 기간: 2005년 7월~12월

◆단기선교 탐방훈련

일시: 2월 1일(수), 8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장소: 배나디움

2006년도 제3차 CMTC 운영 (교육과정: 2주간 장소: 칼리리움)

구 분	2월 5일(다음주일)	2월 12일(주일)
제1강(18:10-18:50)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6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2005년도 선교사역 경험 및 개선 사항

2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I	II	III	IV	V			I	II
2	5	정경길	구재환	박용규	최윤덕	권명옥	이정택	김영주	이형수	
	12	정태두	송두섭	박덕양	김승곤	조종환	홍원식	반정현	이득해	
	19	김단용	전문희	장승규	김구형	차진숙	이인광	노문선	김순자	
	26	김형곤	석영식	장성현	김은철	원운철	김연근	김세애	김중자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30(월)	1/31(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노영진	최종일/이광국	김익환/장승훈	장 호/조문수	임원태/남용승	이희식/류진희	장현민/한성임

예배담당 안내 (2/1-2/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2/1	수요 I	최철환은 우리 주(호산나 찬양대)	여국근 박옥자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벧전 3:7) 김성관 목사
2/1	수요 II	주의 권리로 열매 실리가 굳기(심포니 찬양대)	조유호 주은희	대세 세상을 이기노라 (요 16:25-33) 김성훈 목사
2/3	금요일 I	비록아 이영철 / 소프라노 김용석 / 테너 이영철	이희식	김성관 목사
2/5	주일 I	(예배 전집)	장정길	나의 자산을 살피라 (고후 13:5) 이정훈 목사
2/5	주일 II	나같은 죄인 살리신 / 트럼펫 이영철(벧엘 오케스트라)	김익환 구재환	나의 자산을 살피라 (고후 13:5) 류병희 목사
2/5	주일 III	나의 영광을 말라 / 바이올린 장현민(벧엘 연주자)	장현민 박용규	나의 자산을 살피라 (고후 13:5) 김성관 목사
2/5	주일 IV	이 하나님의 은혜로 / 트럼펫 김성자(벧엘 연주자)	나영정 최윤덕	나의 자산을 살피라 (고후 13:5) 이성진 목사
2/5	주일 V	나같은 죄인 살리신 / 트럼펫 이영철(벧엘 오케스트라)	이광국 권명옥	나의 자산을 살피라 (고후 13:5) 김대식 목사
2/5	주일말	천국 이득주 / 핸드벨 연주회 / 합창단 찬양대	양재용 이정택	감람산 시험 (고전 10:11-13) 김성관 목사

충현여미이집 교사 모집

1. 모집부서 어린이집 정교사 및 보조교사
2. 자격 세례교인 이상,
경리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3. 문 의 서둘러 강갑구 역삼동 665-1, 충현여미이집
☎ 552-7054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오전 11:00에 드리는 주일 기도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00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통역사(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Bow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2:15	관 리 타운
사 랑 부	오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화일) 오후 1:00(성일)	제2교육관 1층
타 아 부	(화) 오전 8:30~오전 4:10 (토) 오후 6:30~오전 9:00	교육관 110호
새가족목양부	오후 12:15	배 나 디 움
충현여미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전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호림복지관
국내외국민선교부	오전 11:00	아 덴 홀

1월 충현여미의 창

-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라.
- 2 2월 17일에 있을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청지기가 성령에 십자가를 같이 새겨 바뀌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 3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서 하나님의 기록한 전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목회하게 하소서.
- 7 5대 전략의 하이라이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신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새벽에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

요일	새벽 예배 담당 대상	감사
월	절로, 안수집사, 전교인 (4:50 시작)	위임목사
화	전신(1,2,3,4구역)	부목사
수	찬양대원(요제프대, 연주대원)	부목사
목	교회학교 교사	부목사
금	남·여 서리집사 및 권결	부목사
토	청년1·2부, 대학부, 충현장학생	부목사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이병학	이 훈
가목회장	교구목회장	감사이사	유지대리사	예배위원회
남선우	김종국	최무길	이창호	차진숙
	총무/사무장	총무/사무장	총무/사무장	총무/사무장
김장남	이종석	이두진	이갑재	전용용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전종필	이정우	김대환	한승규	김영수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김환기	원웅현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김구영	최윤덕	이재민	박덕양	이태식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정태두	박용규	김명옥	조종환	배준식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김영달	이성호	최기우	노영진	박철규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선교부장
김정길	신상수	고재철	강철형	김영은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이단옥	강철형	김대환	한승규	이성민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장성진	안석현	이진근	김장국	홍성진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임정식	김은철	전재학	김진석	전계식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김영국	장승규	석영식	구재환	구재환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송두섭	최하수	신진길	유상재	박상진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김원식	신상철	홍원식	김대식	김대식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 부목사

이종재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여국근	안성덕	나영진	정종호	김용덕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고재철	원진규	김희환	장 호	임원태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이희식	최종일	하종철	한지현	정종신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양재용	이성진	조종환	최승규	이재민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이정훈	이창수	김은희	홍성진	황성진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정성진	김성식	김성관	김성관	김성관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 여전도사

신동자	윤순옥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이옥주	김영자	안대순	김정민	강민필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최은진	전희숙	김영준	김영준	이수경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김정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진	임태주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김영미	유미자	이복순B	이복순B	이복순B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 찬양감독

김영국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제2교육관장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	전신장애자